

이슈브리프 818호  
(2026. 3.11)

## 호르무즈에서 북극으로: 이란 사태가 촉발한 유라시아 지정학 재편 제818호

조은정 [ejrcho@inss.re.kr](mailto:ejrcho@inss.re.kr)



## 국문초록

호르무즈가 닫힐수록 북극은 열린다. 2026년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중동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 물류 질서를 흔들며 유라시아 지정학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공교롭게도 러시아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중동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전략적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 시장 재편, 서방의 전략 자원 분산, 북극항로(NSR)의 부상 등을 통해 구조적 전략 기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 해상 교통로의 불안정성이 부각될수록 북극항로의 대안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북극 전략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한층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격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위기로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라시아 물류와 에너지 질서의 공간적 재편을 촉발하며 러시아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핵 억지와 협상 전략 측면에서 북한의 전략적 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핵무장을 완료하지 않은 국가가 군사적 압박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인식은 평양의 핵 억지 논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상대의 군사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란 사태는 단순한 중동 지역 분쟁을 넘어 북한의 핵 전략과 대미 협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 같은 지정학적 변동을 인식하여, 중동 의존적 에너지 구조를 재검토하고 북극 전략과 북핵 외교, 북극 전략, 동맹 관리가 교차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는 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호르무즈 해협 위기, 북극항로(NSR), 러시아의 전략적 레버리지, 북한의 핵억지 인식, 한국의 에너지·안보 전략, 유라시아 지정학적 재편

## 호르무즈 긴장이 촉발한 새로운 지정학적 충격

한국 시각 2026년 3월 10일 새벽에 가진 연설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 작전이 “예정보다 훨씬 앞서 진행되고 있으며 곧 종료될 것”이라고 밝히며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의 군사 능력이 상당 부분 무력화되었으며, 전쟁 종료 시점은 이스라엘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이번 대이란 군사 작전으로 중동 에너지 시장과 해상 물류가 크게 요동쳤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이란간 긴장으로 공급망 불안이 폭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충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으로 일단 안도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역설적으로 이번 중동 불안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국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러시아로 보인다. 중동 불안정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요와 북극항로(NSR)의 전략적 가치가 동시에 상승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에 중재자로 관여할 경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도 모스크바가 새로운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가 미국과 접촉해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위한 중재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란 사태가 신속히 종료될수록 군사적 승패와 별개로 지정학적 구조에서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 이슈브리프는 이번 이란 사태가 가지고 올 지정학적 변동을 러시아의 전략적 자제와 북극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 준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과 북한에 미칠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 이란 사태와 러시아의 전략적 자제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러시아는 중동의 마지막 거점인 이란을 잃을 위기에 직면했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전략 자산은 단계적으로 침식되어 왔다. 2024년

12월 러시아가 지원했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서 이란은 러시아의 마지막 중동 거점이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란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2025년 1월 체결된 러-이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는 상호방위조항이 없었다. 2024년 6월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자동 군사지원' 조항(4조)이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러시아가 이번 공습에서 적극적으로 이란을 돕지 않은 것은 의지의 부재라기 보다는 '능력의 한계'와 '전략적 자제' 사이의 산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진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중동에 물리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부족한 것은 러시아의 현실적 한계였다면, 북한과 달리 이란과의 조약에 자동 개입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자제였을 것이다.

### 전쟁의 파급효과: 러시아의 구조적 전략 기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이번 이란 사태로 중동에서 거점을 잃고 전략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번 전쟁은 러시아에 오히려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첫째, 미국의 이란 공습이 개시된 순간 우크라이나전에 집중되어 있던 서방 언론, 외교 채널, 군사 자원 등 국제적 관심과 자원이 분산되기 시작했다. 지금 중동에서 격화되고 있는 드론전이 이 같은 분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미군 기지, 미 대사관, 주요 인프라 등을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요격하는 사이, 방공 자산의 수요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공급 여력에 일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러시아가 협상의 우위를 쥌 수 있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이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세계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 위기에 준하는 수준의

급격한 경기변동을 맞았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과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등은 중동 에너지 대체 공급원으로 러시아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30일간 허용하는 한시적 제재 면제를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러시아 석유 관련 제재의 추가 완화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된 대러 제재 체제가 에너지 시장 충격 앞에서 점차 유연해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재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방이 수년간 쌓아온 대러 제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위기로 구조적 균열을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의 에너지 수출 기회이자 외교적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호르무즈의 위기로 북극항로(NSR)가 대체 항로로서 가치가 배가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 기간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루트 대비 대서양-인도태평양 향해 거리를 약 40% 단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이 항로의 사실상 유일한 지배자이다.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질수록, 북극항로의 대안적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중동에서 혼란은 일견 전략적 거점의 붕괴처럼 보이지만, 북극을 세계 물류의 핵심 동맥으로 격상시킬 구조적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 점에서 러시아가 중동에서 단기 손실과 북극에서 중장기 이익을 교환하는 전략적 계산을 이미 마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즉, 호르무즈가 봉쇄될수록 북극은 열리고 있다.

넷째, 협상 상대가 불분명한 전쟁에서 러시아가 중재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있다. 크렘린은 미국의 이란 공습 직후 UAE, 바레인, 카타르에 연쇄 전화 외교를 펼치며 중재 역할을 자임하였다. 이는 이란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걸프 국가들에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수습할 카드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는 외교적 행보로 분석된다. 이란의 잔존 세력과 여전히 소통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란전의 종전 협상의 중재자가 될 경우, 이는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과 패키지로 연계될 수 있다. 러시아의 이란 중재 참여는 트럼프에 ‘우크라이나 출구’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협상카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유라시아 지정학의 재편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번 이란 사태는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지정학적 축 (남방 회랑과 북방 대안 루트) 사이에서 균형추가 이동하는 구조적 전환의 방아쇠를 당겼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라시아 남방 회랑은 구조적 단절의 위협에 처해있다.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극항로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극지 실크로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재평가할 것이다. 이란에서 혼란이 장기화될수록 북극항로의 지정학적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부담에도 불구하고 북극에서 전략 자산의 현대화를 멈추지 않는 구조적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이번 이란 사태에서 특이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 공식 교전국도 아니고 완전한 방관자도 아니다. 미국의 군사 동맹국으로서, UAE의 원전·방산 파트너로서, 중동 에너지 핵심 수입국으로서, 북한과 인접하고 북극 거버넌스 참여국으로서 한국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지정학적 파장에 전방위적으로 교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즉각적인 긴장은 동맹 관리와 전략적 자율성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현하는 ‘거래적 동맹관’은 이번 이란 공격에서 또 다시 드러났다. 의회 승인도, 다자 협의도, 명시적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감행된 이번 작전은 동맹국들에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전략적 유연성)는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했다. 이는 한국이 언젠가 직면할 미국의 기여 요구를 암시한다. 미국의 요구가 가시화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은 정보 공유, 방산 수출, 물자 지원 등에서 기여의 내용과 경계를 사전에 설계해 둘 필요가 있다.

핵전략 측면에서 이란 사태는 한국에 또 다른 고차방정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공습이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한국 내 독자 핵무장 논의가 또 한 번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핵개발을 추구하는 순간 NPT 탈퇴에 따른 외교적 고립, 동맹 구조의 변동, 중국의 격렬한 반발이라는 비용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이 딜레마는 확장 억지의 신뢰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는 질문으로 회귀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워싱턴이 독자적으로 군사 모험을 감행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한국은 자체 핵개발 대신 협의에 기반한 확장 억지의 제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북핵 외교 차원에서는 북미 혹은 남북간 외교적 공간이 축소되었다. 미국이 ‘협상 중 공습’이라는 선례를 만든 이상,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할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한국이 미국 중심의 비핵화 접근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 주도의 복합 접근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을 증대할 것이다. 가령, EU, UN 등 국제기구 및 유사입장 국가들과 ‘한반도 비핵화와 이란 핵 문제는 구조적으로 연동된다’는 국제 핵비확산 담론을 형성하고, 북한의 ‘이란 학습’ 서사에 대한 대항 서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북극 전략 차원에서 이란 사태는 한국의 물류·에너지 안보와 외교 다변화의 필요성을 압축해서 보여주었다. 중동 의존형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이 재확인된 이상, 북극 에너지 루트 참여, 북극 거버넌스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 강화, ‘투명 회랑’과 같은 협력 프레임의 현실화가 단순한 연구 아젠다를 넘어 전략적 우선순위로 격상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란 사태로 러시아가 북극항로를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 러시아의 북극에 대한 독점적 통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조용한 지지자'와 '국제법 준수 촉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지지와 비판 어느 한 쪽으로 선명하게 기울면 한국의 외교 공간은 좁아진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반도 비핵화와 중동 비확산의 연계 구조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핵 거버넌스 복원을 위한 다자 외교 아젠다를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국이 가진 고유한 지정학적 가치를 전략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가 봉쇄될수록 북극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북극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대안적 질서의 공간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북극 시대의 개막에 앞서 한국은 이 같은 지정학적 전환을 수동적으로 경험할지, 능동적 이해관계자로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